

광매칼럼



박상원

본사 상무이사·사회복지학 박사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로’

문건설분야 하도급에는 지역 업체를 60% 할애하도록 했다.

광주글로벌보타스가 인력 채용에 들어가자 자동차 관련 업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자동차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광주형 일자리에 취업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광주글로벌보타스가 완성차 공장 건립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기업 채용박람회에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가 가시화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확산되는 과정에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노동계의 반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러한 ‘곶대’라는 단어가 탄생하고 보편화될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뿌리를 승용 정책 즉 유교를 장려하는 조선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유교의 실천덕목인 삼강오륜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간 저임금 하향평준화 경쟁을 유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는 ‘광주형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로, 저임금 일자리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기획부터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대응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에 오래 몸담았던 박병규 현 광주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보는 “90년대 기아차 광주공장 가산점 제도 등도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 박광대 대표이사는 가산점 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 출신들이 최소한 80% 이상 일자리를 찾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노총의 임금 하향화 주장에 대해 “동화호”의 내부 문제는 차치하고, 광주형일자리 임금인 전체 제조업이나 지역 평균임금보다 낮은지, 전체 일자리 구조 속에 놓고 어느 지점에 있는지 말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인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진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히 목소리를 내 타협지점을 만들 수 있고, 노사민정 협의회에 민주노총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놔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벗어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이다. 핵심 과제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체들은 희망이 없었고, 대기업에 취직해 신분전환을 하는 게 희망이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이 전제조건으로 성공을 위해선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모델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다. 광주의 성공은 투자위축, 고용절벽, 청년실업 등 우리사회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타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청년 취업이 가장 심각한 광주지역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는 광주가 아닌, 일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광주로 바뀔 것이다.

기고



류정현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지원처장

곶대스럽지 않는 어른신의 품격이 필요하다

이 아직까지 기성세대의 보편적 사고라는 점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삼강은 임금과 신하(君爲臣綱), 아버지와 자식(父爲子綱), 남편과 아내(夫爲婦綱)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오륜은 부모는 자녀에게 인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과 섬김을 다하며(父子有親),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고(君臣有義), 남편과 아내는 분별 있게 각기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夫婦有別),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며(長幼有序), 친구 사이에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朋友有信)는 내용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며 뒷사람을 공경하라는 유교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우리의 생활 속에도 뿌리 깊은 전통으로 남아 있다.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버스나 전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등 어른을 공경하라는 데 있다. 어른으로서 젊은세대의 무조건적인 공경을 바라는 기성세대

의 사고가 신세대에게는 자신의 경험만을 일반화하여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비춰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결국 ‘곶대’는 이러한 전통 유교적 사고와 그것만을 고집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신세대들의 일침이 담겨있다고 할 것이다.

유엔에서는 65세 노인인구가 7%가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어서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 서울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4%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광주의 경우 2018년말 기준 총인구 148만2천명 중 18만7천명(12.8%)으로 아직은 고령 사회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유려 지나지 않고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 확실하다.

광주 지하철도 일평균 승승인원 5만2천명 중 33%인 1만7천명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그러다보니 신분증이 없어 무임승차권을 발급하지 못하여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어르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아서 넘어지시는 어르신,

열차 출입문에 가방을 먼저 밀어넣어 출입문 고장을 일으키는 어르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젊은이를 나무라는 어르신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초고령 사회에 곶대스럽지 않는 어르신 품격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곶대스럽지 않고 품격을 갖추려면 소통과 배움이 필요하다. 소통의 출발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데 있고 자신을 내려놓고 신세대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통하여야 한다.

엘빈 토플러는 ‘21세기 문명은 배운 것을 잊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21세기 문명이 되지 않도록 배움을 지속하여야 한다. 배움이란 자기 성장을 통해 비워내고 다시 채워나가는 것이기에 어떠한 형식과 방법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소통과 배움으로 초고령 사회에 적절한 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시점이다. 곶대스럽지 않고 품격있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기를 희망한다.

社說

광주 C-ITS 구축사업 ‘뒷말’ 안 나오게 해야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과 관련 입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실적 평가 부문에서 신규 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됐다는 게 논란의 중심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입찰 공고 전에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C-ITS는 도로 안전 및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첨단교통시스템이다. C-ITS는 국토부 주관 국고 보조 공모사업으로 광주시와 울산시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총 250억원의 예산 가운데 국토부가 150억원, 광주시가 100억원을 부담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는 최근 조달청에 의뢰해 업체 재공모해 들어갔다. 1차 공모에서 한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했지만 유찰됐다. 그런데 일각에선 공모가 경쟁 경쟁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ITS가 신사업 분야로 ‘동등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는데, 실적 평가 배점에서 차등 폭을 높게 설정해 신규 또는 타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는 게 이유다. 울산시의 경

우 배점 차등 폭을 최소화해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는 “C-ITS의 진보된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업체들이 없어 서울시와 제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유사 실적을 충분히 감안해 입찰 공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C-ITS와 같은 대규모 첨단기술 사업은 업체들의 수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업체들은 사활을 걸고 뛰어들게 돼 있다. 이런 사업의 공모를 할 경우 무엇보다 사전에 논란 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광주시는 역점사업 가운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최근 여동산 관광개발 사업자가 선정되기는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광주시는 차체에 대형사업, 특히 미래 먹거리 사업과 관련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뒷말’이 나오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안전사고 우려 ‘송암고가교’ 관리 적극 나서라

광주 남구의 대표적 관문인 ‘송암고가교’가 관리 부실로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흉물어 되고 있다는 보도다. 그런데 송암고가교의 관리를 맡고 있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흔히 그렇듯 예산과 인력 부족 탓에 당장 보수·보강이 어렵다는 것이다.

송암고가교는 효천IC에서 효천역, 송원대 학교 등 방면으로 이어지는 교통 요충지다. 하지만 이 교량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부식과 균열, 파손이 심각하다고 한다. 벽면 곳곳에는 풀뿌리와 넝쿨이 자라 벽면을 통해로 휘감고 있는데다 페인트는 이미 벗겨진 지 오래돼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고, 교량을 지탱하는 일부 다리 이음새 부분은 깨지고 파손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교량 주변에는 녹이 심하게 솟아 있는 철근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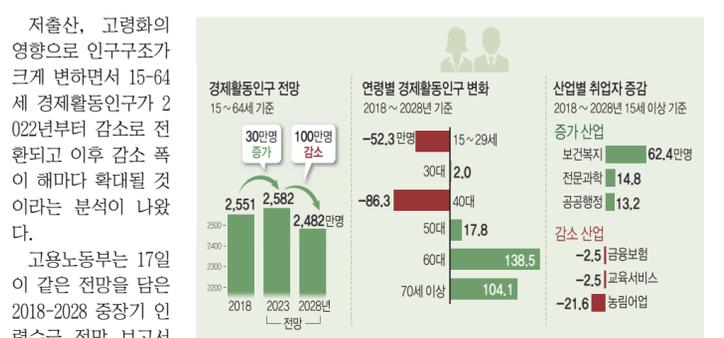
교량의 이런 흉물을 보는 시민과 주민들은

안전사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근 주민은 “벽면에 균열이 가 있는 걸 보면 혹시 사고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섬뜩할 때가 있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런 모습을 관광객들이 보면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매년 보수 계획만 세워놓지 말고 실형에 옮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깝게 지적했다.

광주시 건설본부는 속히 송암고가교의 정밀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벽면에 균열이 가 있는 상태가 지속됐다면 보수, 보강을 하지 꽤 오래됐다는 얘기가 아닌가. 관련 예산 확보와 인력 부족만 탓해선 안 된다. 안전을 점검할 곳이 비단 송암고가교뿐이 아닐 것이다. 지역에 노후 교량들이 많이 있다. 안전진단을 재실시하고 필요하면 즉각 보수, 보강에 나서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후에는 이미 늦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미관저해 요인도 없애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그래픽 뉴스

15-64세 경제활동인구 감소 눈앞...2022년부터 내리막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하면서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2022년부터 감소로 전환되고 이후 감소 폭이 해마다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전망을 담은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장기(10년) 인력수급 전망은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을 예측해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부터 격년으로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인력 공급 제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하고 있고, 15-64세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폭이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인구 구조 때문에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로 전환하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천551만4천명이었으나 2028년에는 2천481만6천명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2028년까지 인구 증가는 둔화하지만, 경제성장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69.3%였으나 2028년에는 72.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고학력화,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52.9%에서 2028년에는 53.7%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3.7%에서 7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논설실장 鄭鎮坦 편집국장 吳星洙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공부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서울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독자투고

신뢰 받는 공직문화 ‘청렴’



청렴이란 무엇인가? 욕심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정직한 것일까? ‘청렴’이란 물음에 국어 사전에는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풀이된다.

대 맹사성과 정약옹이 손꼽힌다. 고불 맹사성(孟思誠)은 조선조 세종 때 좌의정을 역임한 청렴한 공직자로서 귀감이 되었다. 맹사성은 청렴결백하고 절조를 지키는 인물로 공평무사한 일처리를 하였고 백성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애민정치를 적극 실천했다.

조선 정약옹은 목민심서 ‘율기 6조 청심(淸心)’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부로서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청렴’은 모든 공직

자로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공직자라면 자신의 소양을 평생 갈고 닦아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청렴은 법과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에게 더욱더 요구된다. 부패에는 크고 작은 음이 없고, 작은 부패라도 국민의 인생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 하지만 강남 비건션 사건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경찰의 의식·제도·정책이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유착비리·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대·100인 반부패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여기서 나온 고견들을

반부패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경찰 내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조직 내부를 진단해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청문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해 경찰청을 포함한 경찰청관서에서 각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직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지우고하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음과 엄중한 국민적 인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청렴해 질 것이다.

/오영중·진도경찰서 청문관사무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